

해남군, 솔라시도 세계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잔결음

태양광 900mw...RE100 허브 추진

산이·마산면 일원 집적화단지 조성

주민 이익 공유 '상생형 모델' 구축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로 완성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에 승부수를 띄운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산이·마산면 일원 국가 관리 간척지에 민간 투자 2조2천500억원을 유치,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총 900MW 규모의 발전 단지를 주민 참여형으로 조성해,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과 주민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는 산이면 덕호리·마산면 학의리

일대 461ha(300MW)와 산이면 부동리 일원 803ha(600MW) 등 두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전력은 인근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들어설 'RE100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전용 선로를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가 사실상 확정된 데다, 오픈AI-SK그룹 합작 데이터센터 건립과 RE100 국가산단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와 첨단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으로, 군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주민들이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상생형 모델'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남군이 산이·마산면 일원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민관협의회 관계자들이 제6차 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이를 위해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와 '해남군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협의회 운영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산이·마

산 민관협의회'는 지난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이달 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여론을 수렴, 연내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발족한 '부동지구 민관협의회' 역시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갖고 사업 명칭을 '해남군 산이 부동 햇살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으로 확정 짓고,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결의했다.

해남군은 이번 집적화단지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솔라시도에 5.4GW 규모의 태양광과 송·배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손명도 해남부군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해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기반이자,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한 상생 모델"이라며 "사업보다 주민이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이익 공유 방안 등을 세밀하게 마련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지역 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시 6년 연속 SRT '최고의 여행지' 대상

독자·전문가 호평...관광 도시 입증

해상케이블카 등 매력 콘텐츠 인정

목포시가 6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지' 타이틀을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SRT매거진이 주관하는 '2025 SRT 어워드'에서 '올해 최고의 여행지 대상'을 수상하며, 지난 2020년부터 6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사진>

SRT매거진은 수서발 고속열차(SRT) 차내지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국내 최고의 여행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어워드는 전국 46개 도시를 후보로 진행됐다. 지난 9월 한 달간 1만2천60여명의 독자 설

문조사를 바탕으로 여행 작가와 기자 등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방문객 데이터 분석, 온·오프라인 홍보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목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맛의 도시'라는 확고한 브랜드 인지도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근대역사문화 유산, 다도해의 파노라마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인지 목포시 관광과장은 "6년 연속 대상 수상은 목포가 가진 관광 경쟁력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목포만의 낭만과 맛, 멋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 대동면 주민자치회, 주민이 뽑은 사업 '첫발'

오늘까지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함평군은 11일 "대동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면사무소 2층 복지센터에서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행복 가득한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열린 '제1회 대동면 주민총회'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제안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의제가 실제 실행 단계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민자치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별로 이동 차량을 지원하고, 전문 사진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첫날인 지난 8일에는 15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이번 장수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지팡이 지원, 이불 세탁 서비스, 경로당 안전바 설치 등 총회에서 확정된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기영규 기자



진도군 정부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 첫 '우수 기관'

진도군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처음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해당 평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자립 지원 ▲서비스 지원 ▲복지 전달 체계 ▲우수 사례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진도군은 평가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실행력을 높게 인정받아, 처음으로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진도=박세권 기자

강진서 '국악·재즈·트로트' 향연 펼쳐진다

18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 송년콘서트

전남음악창작소 지원 뮤지션들 한 자리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에서 국악과 재즈, 트로트가 어우러지는 환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11일 (제)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전남음악창작소는 오는 18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특별 기획공연 '2025 전남음악창작소 뮤지션 송년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올 한 해 전남음악창작소가 발굴하고 지원해 온 지역 뮤지션들의 우수한 역량을 선보이는 '성과 공유의 장'이자, 군민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제의 자리로 마련됐다.

공연의 주제는 ▲'뿌리(강진의 소리)' ▲'줄기(창작소 뮤지션)' ▲'꽃(가수 최수호)'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돼 전통과 현대, 지역과 대중을 잇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남음악창작소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국가대표급'으로 성장한



사지원족부터 JAZZ 보컬 고아라, 미스터트롯2·현역가왕 최수호·MBN 조선판소리 우승 김산옥

지역 뮤지션들의 라인업이다.

먼저 MBN '조선판스타' 우승자로 대중에게 각인된 소리꾼 김산옥이 무대에 오른다. 제9회 영광합성포단오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장원 출신인 그는 이번 무대에서 신곡 '빛이 된 당신'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한다.

재즈와 국악의 크로스오버를 이끄는 건반 연주자 강윤숙(리디안팩토리 리디)도 참여한다.

창작소 지원으로 4장의 정규 앨범을 낸 그녀는 낯선 국악과 재즈를 대중적인 화법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미스터트롯2'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오른 최수호가 '조선의 남자', '인연' 등 히트곡을 열창하며 급의환향의 기쁨을 군민들과 나눈다.

이밖에 풍물패 장터의 '여는 소리'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과 뮤지션이 함께하는 '강강술래'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피날레에서는 국악 크로스오버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된 '강진군민의 노래'를 600여명의 관객이 한목소리로 제창하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할 예정이다.

김기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송년 콘서트는 대중 스타와 주민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라며 "많은 군민이 참석해 강진의 문화적 자력을 느끼고 활력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음악창작소 (061-433-3636)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군은 최근 영광스포티움에서 장세일 군수,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체전 성공개최 기념 시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5대 체전 성공 기념행사 개최

스포티움 일원서 시계탑 제막·화합의 밤

유용자 22명 표창·스포츠 선도시 다짐

영광군이 지난 2년간 대규모 체육 행사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쌓아 올린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영광스포티움에서 '5대 체전 성공개최 기념 시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계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군민과 선수

단이 함께 일궈낸 도전과 성취의 순간을 기념하고, 영광군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도시'로 도약했음을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

영광군은 지난해 제6회 전남도 체육대회, 제32회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제20회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제37회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전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5개 메이저 대회를 완벽하게 치러냈다.

특히 15년 만에 영광에서 열린 제6회 전남체전에서는 종합 2위,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종합 3위라는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막한 시계탑은 군민의 화합과 열정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같은날 영광스포츠헤터에서 '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행사가 열려 올 한 해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용자 2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올해의 TOP 10'으로 선정해 시상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장세일 군수는 "한 해 동안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선수 여러분의 땀과 도전이 영광군의 이름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군, 폭설·한파 대응 비상체제 돌입

제설차 13대·제설제 620t 확보

영암군은 "최근 주요 도로와 상습 결빙 구간 등 재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자재와 장비 배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부터 군민의 안전

을 지키기 위해 교차로와 고갯길 등 위험 도로변 108곳에 제설함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 6천 개를 비치해 초기 대응력을 높였다.

또한 자체 보유한 1t 트럭 6대와 15t 트럭 5대에 더해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15t 덤프 트럭 2대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13대의 제설 차

량을 준비했다.

이밖에 친환경 제설제 620t을 확보해 관내 11개 읍·면에 20씩 배정을 마쳤으며, 각 읍·면은 지역 사정에 밝은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한 제설과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